

모두가 행복한
형신미래교육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2014 서울형 토론모형

2014. 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서울형 토론 모형의 특징

■ 짝 토론과 모둠 토론의 결합을 통한 통합적 사고 촉진

짝 토론(하브루타 방식)과 모둠 토론을 결합하여 재구성한 방식으로, 사고의 형성과 충돌, 통합에 초점을 맞추었다.

■ 질문을 통한 탐구와 문제 해결

주어진 자료를 통해 공부하면서 학생 스스로가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주도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개인별 탐구에서 2인, 4인 토론으로 확장하는 모형으로, 비경쟁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토론 모형의 구조화를 통한 적용의 용이성 및 유연성 확보

단순하게 토론 모형을 구조화하여 토론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없는 교사와 학생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모든 교과와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NTENTS

서울형 초등 토론 모형

- I. 토론의 절차 / 6
- II. 토론의 실제 / 7
- III. 도움말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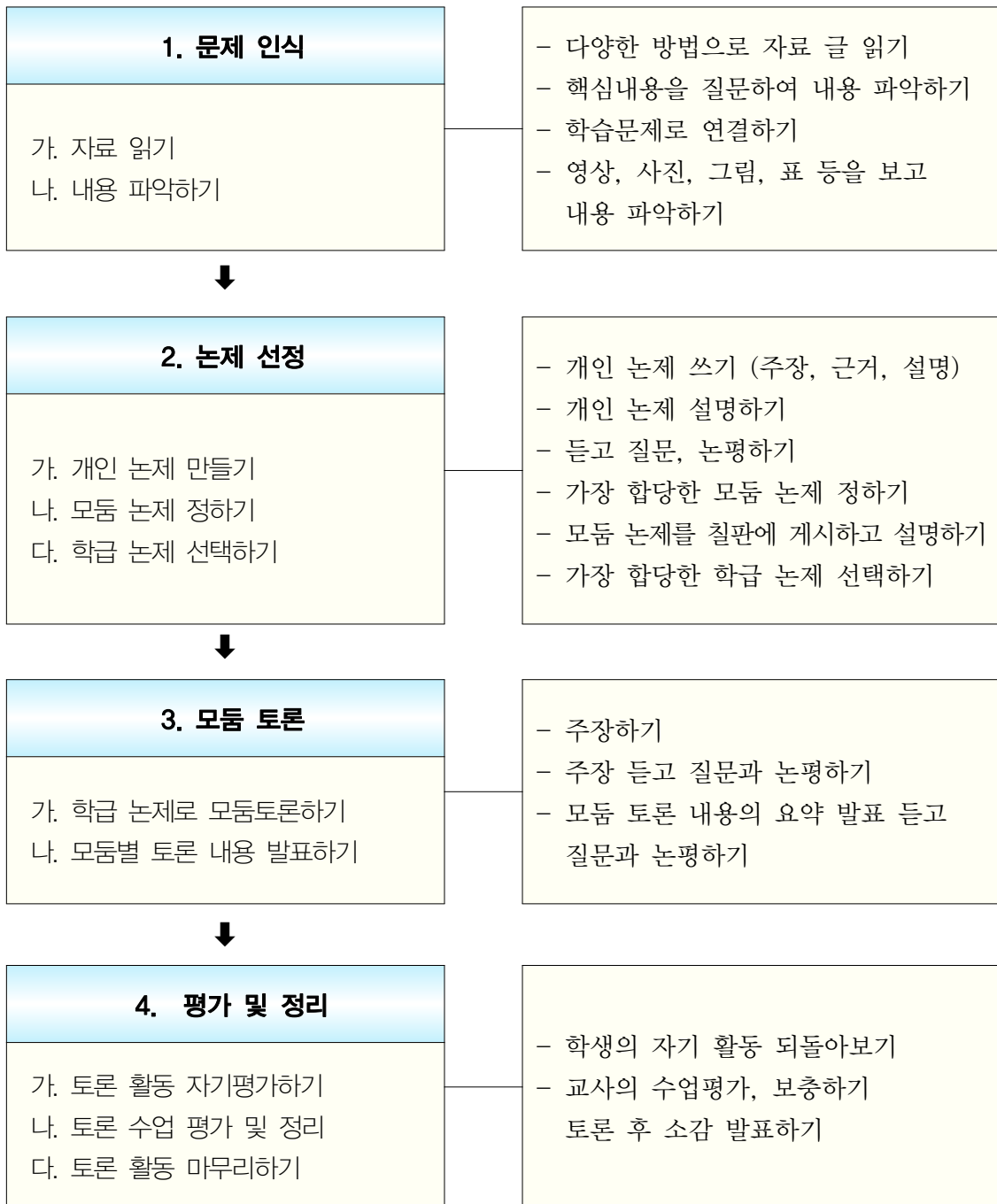
서울형 중고등 토론 모형

- I. 토론의 절차 / 22
- II. 토론의 실제 / 23
- III. 도움말 / 34
- IV. 활동지 양식 / 36



서울형 초등 토론 모형

I 토론의 절차



Ⅱ 토론의 실제



1. 문제 인식

가. 자료 읽기

-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 글 읽기

나. 내용 파악하기

- 핵심내용을 질문하여 내용 파악하기
- 학습문제로 연결하기
- 영상, 사진, 그림, 표 등을 보고 내용 파악하기

가. 자료 읽기(예시-국어 4-1(가) 5. 서로 다른 느낌 ‘우리는 한편이야’)

-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 글 읽기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한 문장씩 자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1	읽기 자료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실감나게 읽습니다.
학생2	우리 교실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습니다.
선생님	네,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읽어봅시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번갈아 가며 한 문장씩 자료 읽기)

나. 내용 파악하기

- 핵심내용을 질문하여 내용 파악하기
- 학습문제로 연결하기
- 영상, 사진, 그림, 표 등을 보고 내용 파악하기



선생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을 근거를 대어 발표해 봅시다.
학생1	저는 어머니께서 실제로 선물을 줄 것이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께서 “내가 그럴 능력이라도 되면 좋게?”라고 말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안 해 준 것도 화가 나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아버지가 나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이유를 들어 발표해 볼까요?
학생2	밤에 생일 선물을 그림으로 꽃을 그리는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온 가족이 생일을 잊고 있다가 늦은 밤에 서두르는 모습이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학생3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저의 어머니께서는 이럴 경우에 웃으며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버지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참고 지나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엄마와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1	저는 엄마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고 산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준 반지 그림을 보고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2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올해에도 엄마의 생일을 기억해주지 못한 것은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해야 합니다.

2. 논제 선정

가. 개인 논제 만들기

- 개인 논제 쓰기 (주장, 근거, 설명)

나. 모둠 논제 정하기

- 개인 논제 설명하기
- 듣고 질문, 논평하기
- 가장 합당한 모둠 논제 정하기

다. 학급 논제 선택하기

- 모둠 논제를 칠판에 게시하고 설명하기
- 가장 합당한 학급 논제 선택하기



가. 개인 논제 만들기

- 개인 논제 쓰기 (주장, 근거, 설명)

선생님	우리반 친구들과 토론해 보고 싶은 논제를 써 봅시다. 근거와 설명도 함께 써봅시다.
-----	--

나. 모둠 논제 정하기

- 개인 논제 설명하기
- 듣고 질문, 논평하기
- 가장 합당한 모둠 논제 정하기

선생님	모둠별로 개인이 쓴 논제를 근거와 이유를 들어 발표해 보고, 가장 적절한 논제를 다수결로 정해서 모둠별로 1개씩 뽑아 칠판에 나와 써 봅시다. 먼저 각자 논제를 적고 1번 학생부터 발표해 봅시다.
학생들	논제를 발표하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책에 쓰기 (쓰는 양은 1~2문단 정도)
학생들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이유와 근거를 대어 쓴다. (간단하게 메모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학생1	저는 ‘엄마께서 자신의 생일을 기억 못한 아빠에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논제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아빠나 엄마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학생2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화를 내는 것도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빠가 엄마의 생일을 깜박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일선물을 꼭 주고 받아야 하는가?’라고 정하면 좋겠습니다.
학생3	저는 ‘생일 선물을 꼭 주고받아야 하는가?’라는 논제는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논제라고 생각합니다. ‘조화로 선물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4	저는 ‘아빠가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논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다음에 반지를 사 준다고 말씀하신다면 가족의 문제가 없어 지고 다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학급 논제 선택하기

- 모둠 논제를 칠판에 게시하고 설명하기
- 가장 합당한 학급 논제 선택하기

선생님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적은 논제 중에서 우리 모둠을 대표할 수 있는 논제를 한 가지 선정해서 칠판에 적어봅시다. 각 모둠에서 정한 논제를 칠판에 나와 정해진 자리에 모둠대표가 적습니다. 그리고 각 모둠대표는 그와 같은 논제를 정한 이유를 발표해 주세요.
모둠대표1	우리 모둠은 ‘조화로 선물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로 정했습니다. 선물한 것은 의미가 있기도 하고 어쩌면 안 하고 다음에 선물을 드리는 것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모둠대표2	우리 2모둠은 ‘선물은 꼭 해야 하는가?’로 정했습니다. 선물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꼭 물건으로 선물을 해야 하는가? 의문이 들어서입니다.
모둠대표3	우리 모둠은 아빠가 “아니 뭐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라고 답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를 선택했습니다. 아빠가 그 와중에 꼭 그렇게 대답해야 했을까? 다르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둠대표4	‘엄마께서 자신의 생일을 기억 못한 아빠에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정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생일을 기억 못한 아빠에게 화를 내어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안 한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었을까? 생각해 보고 싶어서요.
모둠대표5	‘아빠가 무뚝뚝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로 정했습니다. 아빠가 무뚝뚝 하나 믿음직하다고 했는데 아내에게 무뚝뚝하게 대하는 것은 괜찮은지 알고 싶어서요.
모둠대표6	우리 모둠은 ‘엄마가 자신의 생일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은?’으로 정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생일을 미리 알려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토론하고 싶어요.
선생님	모둠대표들의 논제에 대한 이유를 듣고 가장 같이 토론해 보고 싶은 논제를 다수결로 정하겠습니다.
학생들	토론하고 싶은 논제에 손을 든다.
선생님	정해진 논제는 『엄마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 못한 아빠에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3. 모둠 토론

가. 학급 논제로 모둠 토론하기

- 주장하기
- 주장 듣고 질문과 논평하기

나. 모둠별 토론 내용 발표하기

- 모둠 토론 내용의 요약 발표 듣고 질문과 논평하기

가. 학급 논제로 모둠 토론하기

- 주장하기
- 주장 듣고 질문과 논평하기

선생님	<p>지금부터 논제 『엄마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 못한 아빠에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주장 펼치기를 하겠습니다.</p> <p>먼저, 1번 토론자부터 자신의 주장을 2분 동안 펼쳐주시고, 발언자의 다음 번호부터 순서대로 1분 이내로 논평, 질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1분에는 입론(주장 펼치기)을 발언한 사람의 답변 시간까지 포함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1분을 넘기게 되면 발언 중이라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토론자부터 주장 펼치기 시작!</p>
제1토론자 (학생1)	<p>엄마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 못한 아빠에게 화를 내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인터넷 조사에 따르면 모든 부부들은 한번 이상씩은 부부 싸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부 싸움은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기도 합니다.</p> <p>아빠에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첫째, 아빠가 엄마의 생일을 그냥 계속 넘어가니까 화는 내야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제가 깜빡한 것을 알려주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면 저절로 머리에 기억됩니다. 또 다시 혼나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해 놓는다거나 꼭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p> <p>둘째, 어느 순간 욱해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꼭 화를 내지 않고 엄마의 서운한 심정을 얘기할 수 있지만 ‘허가 깊어도 마음속까지는 닿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화는 숨길 수 없습니다. 화를 참고 쌓아두면 결국 폭발하게</p>



	<p>되고, 생일을 2번 이상이나 잊었으니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10명 중에 9명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p> <p>셋째, 아내에게 너무 무신경하니까 화가 나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번 이상은 까먹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 조사 결과 여자들에게 자신의 생일이란 좋아하는 남자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빠는 계속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p> <p>따라서 저는 엄마가 화를 낼 수 있는 이유가 타당하고 아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므로 ‘엄마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 못한 아빠에게 화를 내는 것은 바람직한가?’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p>
선생님	<p>각 모둠에서 순서를 정해 제1토론자가 주장과 근거를 말하면, 다음 제2토론자가 질문하고 제1토론자가 답변하는 순서대로 토론합니다.</p>
제2토론자 (학생2)	<p>제1토론자께서 화를 참으면 병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다보면 더 속상해지고 열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p>
제1토론자 (학생1)	<p>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것보다는 화를 참고 다른 방법으로 화를 푸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p>
제3토론자 (학생3)	<p>제1토론자께서 엄마가 화를 많이 내지 않으면 계속 생일을 잊고 그냥 넘어 갈 수 있다고 했는데, 화를 내도 내년에는 또 잊고 그냥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제1토론자 (학생1)	<p>그렇다고 하더라도 선물을 잊고 안 했을 때 어느 정도 충격을 계속 주면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신경을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제4토론자 (학생4)	<p>아빠가 아내에게 너무 무신경하다고 하셨는데, 생일을 잊는다고 다 무신경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p>
제1토론자 (학생1)	<p>아무래도 생일을 두 번씩이나 잊고 있는 것은 무신경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다면 선물을 사지 못했다 하더라도 편지라도 쓸 수 있지 않나요?</p>
선생님	<p>1번 토론자님의 주장과 여러분의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2번 토론자님의 주장과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p>



나. 모둠별 토론 내용 발표하기

● 모둠 토론 내용의 요약 발표 듣고 질문과 논평하기

선생님	모두 수고했습니다. 각 모둠에서 토론한 내용을 대표 토론자가 발표해 봅시다.
모둠대표1	우리 모둠에서는 논제 ‘엄마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 못한 아빠에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엄마는 어른이니까, 화를 내지 말고 아빠를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모둠대표2	우리 모둠은 1모둠과 좀 다릅니다. 우리 모둠에서는 거짓말을 못하는 아빠 성격으로는 내년에도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선물도 하지 못할 것이므로, 화를 내기보다는 1주일 전부터 매일 매일 생일을 알려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모둠대표3	우리 3모둠은 아들과 딸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커다랗게 달력에 가족행사를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엄마가 올해도 생일을 잊은 아빠에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매년 화만 내면 엄마 생일날은 행복하지 않은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둠대표들	각각 모둠 토론 내용을 발표한다.

4. 평가 및 정리

가. 토론 활동 자기평가하기

- 학생의 자기 활동 되돌아보기

나. 토론 수업 평가 및 정리

- 교사의 수업평가, 보충하기

다. 토론 활동 마무리하기

- 토론 후 소감 발표하기



가. 토론 활동 자기평가하기

● 학생의 자기 활동 되돌아보기

선생님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열심히 듣는 여러분의 토론하는 태도를 칭찬합니다. 오늘 대표토론에서 자신이 주장과 질문을 잘 했는지 발표해 봅시다.
학생1	저는 질문을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학생2	저는 주장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논제에 대한 아주 적절한 근거를 대며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학생3	저는 질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을 잘 듣고 타당한지를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나. 토론 수업 평가 및 정리

● 교사의 수업평가, 보충하기

선생님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열심히 듣는 여러분의 토론하는 태도를 칭찬합니다. 오늘 대표토론에서 질문을 잘한 토론자는 누구입니까?
학생1	저는 제1토론자가 질문을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학생2	저는 제4토론자가 질문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논제에 대한 아주 적절한 근거를 대며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답변을 잘한 토론자는 누구입니까?
학생3	저는 2번 토론자가 답변을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내용을 잘 듣고 그 내용에 대해 예를 들어 잘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학생4	저는 제1토론자가 답변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에 대해 다른 정보를 이용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다. 토론 활동 마무리하기

● 토론 후 소감 발표하기

선생님	오늘 질문과 답변을 잘한 친구들에게 손뼉을 쳐 주세요! 다음은 오늘 토론에서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낀 것을 발표해 보세요.
학생2	저는 오늘 토론에서 논제에 대해 제가 생각지 못한 질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학생3	저는 오늘 토론에서 답변을 잘하려면 아는 것이 많아야 하니까 독서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 했어요.
학생4	만약 내가 엄마처럼 아빠가 생일을 기억 못해 준다면 그것도 두 번씩이나 잊어 버린다면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학생1	저는 아빠가 회사일이 바빠서 생일 선물을 못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토론을 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아내의 생일은 기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학생2	저는 토론하기 전에는 제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는데, 토론을 해보니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III 도움말



1. 내용 파악

자료 읽기



자료를 읽을 때, 교사와 학생이 한 문장씩 번갈아가며 읽기, 또는 교사를 포함하여 학급 전체 학생들이 한 문장씩 돌아가며 읽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면,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분위기에서 수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내용 파악하기



- 교사는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예-글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인상 깊은 장면 등)
- 교사가 논제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사고활동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엄마와 아빠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모둠 논제 선정

논제 정하기



- 모둠논제 판단할 때, 스티커를 사용하여 멀티보팅하거나 '☆'점수를 개인논제를 적은 쪽지에 표시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1인당 '☆'점수는 1~2개 등 학급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논제를 쓸 때는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메모도 좋습니다. 내용을 적는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논제가 미리 선정되었을 때는 '토론준비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과제로 해 오는 방법도 좋습니다.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싶은 논제가 있을 때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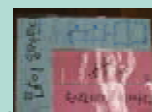
토론 준비표

2014년 월 일 요일 이 름 :

논 제	
자신의 주장	
근거(이유)	① ② ③



- 모둠대표 논제를 칠판에 기록할 때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합니다.
8절 도화지 1/2을 코팅한 판을 사용하여 칠판에 게시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하여 모둠 논제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질문에 허용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질문하는 학생에 대하여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 각 모둠대표가 선정한 논제에 대하여 다른 모둠 학생들의 질문이 없을 경우, 교사가 질문을 유도하거나 만들기도 하고, 학생들이 논제에 대해 칭찬할 점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논제에 대한 의견 쓰기



- 논제에 대한 의견은 주어진 시간에 따라 1~3문단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토론공책을 준비하면 학생들 스스로 토론에 필요한 표를 만들어서 의견을 쓰거나, 토론 후 평가표도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3. 모둠 토론

모둠 토론하기



- 토론을 할 때, 한 사람당 2~3개의 의견막대를 사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토론 자료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 모형마이크를 사용하면, 어떤 학생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다른 학생들로부터 집중을 받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말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 ‘토론과정표’를 사용하면 모둠에서 토론과정에서 오고 간 의견들을 메모할 수 있고, 좋은 의견을 선택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 ‘모듬토론 사회자 매뉴얼’을 사용하여 모듬 내 1명의 사회자가 모듬토론을 진행하면 보다 적극적인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토론학습 초기에는 교사가 전체 진행을 하다 익숙해지면 모듬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론 과정표				
	김철수	오사랑	이행복	오박사
주장 펼치기

모듬토론 사회자 매뉴얼

▷ 논제 ‘_____’에 대한 모듬 토론시간입니다.
 논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주장 펼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토론자부터 자신의 주장을 2분 동안 펼쳐 주시고, 발언자의 다음 번호부터 순서대로 1분 이내로 논평, 질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발언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과’를 외칩니다. 주어진 1분에는 주장 펼치기를 발표한 사람의 답변 시간까지 포함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1분을 넘기게 되면 발언 중이라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토론자부터 주장 펼치기 시작!

(1번 주장 펼치기가 끝난 다음, 토론자가 발언하기 시작하자마자 타이머로 시간을 켜다.)



- ▷ 1번 토론자의 주장 펼치기를 잘 들었습니다. 2번 토론자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끝나면 다음 사람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시작!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번 토론자의 주장 펼치기가 2분 동안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시작!
- ▷ 2번 토론자의 주장 펼치기를 잘 들었습니다. 3번 토론자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 ▷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4. 소감 및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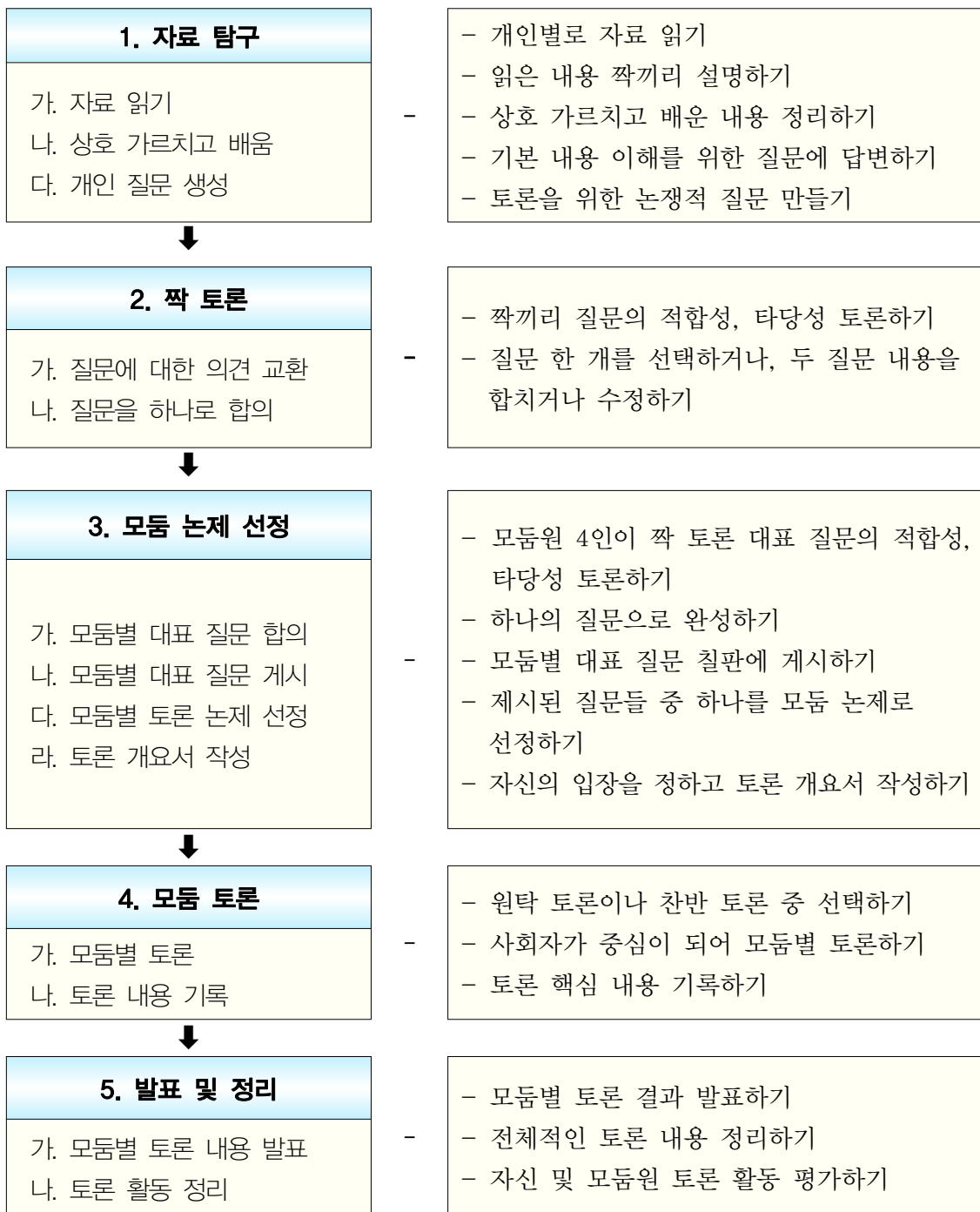
- 정리 단계에서는 평가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있는 정리시간을 통하여, 다음 토론에서 더욱 분발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도록 합니다.
- 토론학습에 대한 '스스로 평가하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등 토론에서 사용하는 색종이 카드(빨강 색종이, 파랑 색종이)로 '열심히 참여 했습니다'(파랑 색종이), '좀더 노력하겠습니다.'(빨강 색종이)를 제시하고 그 이유도 발표해 봅니다.





서울형 중고등 토론 모형

I 토론의 절차



II

토론의 실제

(박기범의 『문제아』를 중심으로)



1. 자료 탐구

가. 자료 읽기

- 개인별로 토론을 위한 논쟁적 질문 생각하며 읽기

나. 상호 가르치고 배움

- 읽은 내용 짚끼리 설명하기
- 상호 가르치고 배운 내용 정리하기

다. 기본 내용 이해와 개인 질문 생성

- 교사의 기본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에 답변하기
- 토론을 위한 논쟁적 질문 만들기

가. 자료 읽기

- 개인별로 토론을 위한 논쟁적 질문 생각하며 읽기

교사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설을 읽고 모둠별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자료는 박기범의 『문제아』라는 단편 소설로, 하창수라는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겪은 일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창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소설을 통해 다른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논쟁적 질문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교사가 별도의 읽기 후 자료를 제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배경이나 사건, 인물의 특성 등 읽은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룰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역할을 나누어 준다.)
학생들	배부한 읽기 자료를 읽는다.



나. 상호 가르치고 배움

- 읽은 내용 짚끼리 설명하기
- 상호 가르치고 배운 내용 정리하기

교사	지금부터는 읽고 공부한 내용을 친구에게 설명합니다. 선생님이 나누어준 역할에 따라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 1번은 2번 친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읽기 자료를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은 친구가 설명하는 내용을 메모하면서 들읍시다. 자, 그럼 3분간 설명 시작!
학생	1번이 2번에게 설명하고, 2번은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질문한다. - 〈서식1〉 활용
교사	이제 역할을 바꿉니다. 2번은 1번 친구에게 읽기 자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설명을 듣는 학생은 궁금한 점을 질문하거나 내용을 메모하면서 들읍시다. 자, 그럼 3분간 설명 시작!
학생	2번이 1번에게 설명하고, 1번은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질문한다.

다. 개인 질문 생성

- 교사의 기본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에 답변하기

교사	재미있게 읽었습니까? 주인공 창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말해 볼까요?
학생1	초등학교 5학년인 ‘나’(하창수)는 원래 문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키에 마른 체격을 가진 한 소년이었을 뿐이죠. 단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이들이 철봉을 하자, 자신도 하기 위해서 오기를 부리면서 노력했고, 태권도 도장을 다니는 아이들이 낙법을 시범 보이자, 멍이 들도록 집에서 연습을 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던 그런 소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강패들을 만나면서 창수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은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강패에게 할머니 약값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강패를 때리고 도망 와 버렸는데, 다음날 학교에서 강패를 쫓아다니던 ‘규석이’가 자신을 때립니다. 맞다 못한 창수는 의자로 규석을 내리쳐 이 두 개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히죠. 이후 세상은 창수를 문제아로 낙인찍어 버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창수를 여느 아이들과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친구들 역시, 창수를 점점 피하게 됩니다. 마침 창수의 아버지는 도배장이로 일하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수술비에 보태기 위해 신문 배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문 배급소에서 일하는



	<p>‘봉수형’을 만나 자신을 알아주는 그의 말에 따라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집에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을 했고, 시간 때문에 할 수 없이 오토바이를 탄 채 학교에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더 문제아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p> <p>그리고 6학년이 되면서 조금은 평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창수이지만, 결국 자신을 문제아로 보는 새로운 담임선생님에 의해 희망은 다시 깨어지고 맙니다. 창수는 자신을 문제아로 보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문제아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보통 아이처럼 대해 주는 ‘봉수형’을 빼고는 말이죠.</p>
교사	<p>00이가 줄거리를 아주 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겪은 일을 잘 전해주고 있는 소설이지요?</p> <p>이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논쟁적 질문을 만들면 친구들과 더 치열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요? 논쟁이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의 차이를 보이며 다투는 문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논쟁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작품 『문제아』를 통해 친구들과 토론하고 싶은 논쟁적 질문을 각자 만들고, 포스트잇에 적어봅시다.</p>

● 토론을 위한 논쟁적 질문 만들기

학생1	<p>저는 논쟁적 질문으로 ‘하창수는 문제아인가?’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p> <p>- 〈서식1〉 활용</p>
학생2	<p>저는 논쟁적 질문으로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옳은가?’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p>

2. 짝 토론

가. 질문에 대한 의견 교환

- 질문을 생성하게 된 이유, 내용 설명하기
- 짝끼리 질문의 적합성, 타당성 판단하기

나. 질문을 하나로 합의

- 질문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질문 내용을 합치거나 수정하기





가. 질문에 대한 의견 교환

- 질문을 생성하게 된 이유, 내용 설명하기
- 짝끼리 질문의 적합성, 타당성 토론하기

교사	포스트잇에 적은 질문에 대해 짝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학생1	저는 ‘하창수는 문제아인가?’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창수 본인은 문제아로 불리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저는 창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학생2	저는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옳은가?’라는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창수가 규석이를 때렸다는 이유로 문제아로 낙인찍히는 것을 보면서 이 주제로 토론하면 좋은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질문을 하나로 합의

- 질문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질문 내용을 합치거나 수정하기

교사	짝과 의견을 주고받았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2개의 질문 중에서 1개의 질문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생1	자료의 내용과 관련 있는 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학생2	우리반 친구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논제여야 합니다.
학생3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논제여야 합니다.
교사	이러한 평가 관점을 가지고 2개의 질문 중에서 1개의 질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1	저는 ‘하창수는 문제아인가?’라는 질문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옳은가?’라는 질문은 찬성 의견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생2	그럼, ‘하창수는 문제아인가?’에 대한 찬성의 근거는 다양한가요?
학생1	예, 창수가 문제아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규석이를 너무 심하게 때리거나, 초등학생으로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등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2	그렇군요. 그럼 ‘하창수는 문제아인가?’를 질문으로 선택하지요.



3. 모둠 논제 선정

가. 모둠별 대표 질문 합의

- 모둠원 4인이 짝 토론 대표 질문의 적합성, 타당성 토론하기
- 하나의 질문으로 완성하기

나. 모둠별 대표 질문 게시

- 모둠별 대표 질문 칠판에 게시하기

다. 모둠별 토론 논제 선정

- 게시된 질문들 중 한 개를 모둠 논제로 선정하기

라. 토론 개요서 작성

-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토론 개요서 작성하기

가. 모둠별 대표 질문 합의

- 모둠원 4인이 짝 토론 대표 질문의 적합성, 타당성 토론하기
- 하나의 질문으로 완성하기

교사	짝과 함께 선정한 1개의 질문을 가지고 4명이 토론합니다. 모둠원과 서로 마주보고 2개의 질문 중에서 1개의 질문을 선정하겠습니다. (6명이 1모둠일 경우에는 3개의 질문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 안내) 조금 전에 발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선택해 주십시오.
학생1	우리는 ‘하창수는 문제아인가?’라는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학생2	창수가 문제아로 불리는 것에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데, 창수가 문제아가 아니라서 억울한 면은 없는지, 창수가 문제아라면 어떤 점에서 문제아인지를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3	우리는 ‘창수가 문제아가 된 것은 창수 개인의 책임인가, 아니면 사회의 책임인가?’로 정했습니다.
학생4	창수가 문제아가 된 것은 창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창수를 둘러싼 사회 전반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학생1	‘창수가 문제아가 된 것은 창수 개인의 책임인가, 아니면 사회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은 창수를 문제아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닌가요? 창수가 문제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학생3	그렇군요. 그럼 ‘하창수는 문제아인가?’라는 질문이 더 포괄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학생 2,4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1	그럼 우리 모둠은 ‘하창수는 문제아인가?’를 질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학생 2,3,4	좋습니다.
교사	모둠 논제가 다 선정되었으면 주어진 자석보드에 질문을 적어서 칠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둠별 대표 질문 게시

● 모둠별 대표 질문 칠판에 게시하기

교사	<p>6개 모둠의 질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질문들을 보고 자신의 모둠에서 만든 질문과 유사한 질문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그리고 추가 설명을 듣고 싶은 논제가 있으면 질문해 봅시다.</p> <p>예시) 1모둠: 창수는 문제아인가? 2모둠: 문제아를 보통 아이처럼 대해주어야 하는가? 3모둠: 학교생활기록부로 학생을 판단하는 것은 옳은가? 4모둠: 문제아는 주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가? 5모둠: 한 번의 잘못으로 문제아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가? 6모둠: 창수를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는 것이 더 좋은가?</p>
----	---

다. 모둠별 토론 논제 선정

● 제시된 질문들 중 한 개를 모둠 논제로 선정하기

학생1	3모둠의 논제는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는 좀 관련이 적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모둠 대표 학생	창수가 6학년 담임선생님에게도 문제아로 인식되는 것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입시나 취직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 지원자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학생2	학교생활기록부를 참고하여 학생을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3모둠 대표 학생	지금 생각해 보니 저희 모둠이 만든 ‘학교생활기록부로 학생을 판단하는 것은 옳은가?’라는 질문보다는 5모둠의 ‘한 번의 잘못으로 문제아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토론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소설의 주제에서 많이 벗어날 것 같습니다.
교사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참고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가지 질문들 중에서, 모둠원들이 가장 원하는 질문을 모둠 토론의 논제로 선정하십시오.
학생들	모둠별로 논의를 하여 모둠 토론 논제를 선정한다.
교사	이제 각 모둠에서 선택한 논제에 따라 모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라. 토론 개요서 작성

-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토론 개요서 작성하기

4. 모둠 토론

가. 모둠별 토론

- 원탁 토론이나 찬반 토론 중 선택하기
- 사회자 선정하고 토론 규칙 공유하기
- 사회자가 중심이 되어 모둠별 토론하기

나. 모둠별 토론 내용 기록

- 토론 핵심 내용 기록하기

가. 모둠별 토론

- 원탁 토론이나 찬반 토론 중 선택하기
- 사회자 선정하고 토론 규칙 공유하기
- 사회자가 중심이 되어 모둠별 토론하기(원탁토론 적용)

사회자 (학생2)	우리 모둠은 모둠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문제아는 주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가?’를 토론 주제로 선정하였고, 토론 방식은 원탁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모둠 토론 전에 토론의 규칙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	---





	<p>분위기로 토론에 임해 주세요. 서로를 ‘00토론자님’으로 불러주세요. 상대의 말을 중간에서 끊지 마시고, 경청하는 자세로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발언을 1분 이내로 해 주시되, 주장만 하지 마시고 주장에 따른 근거를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p> <p>토론은 원칙적으로 각자 두 번씩 발언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자신의 기본적인 입장을, 두 번째 발언은 질문이나 반문으로 의견을 내 주세요. 그래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겠지요. 중간 중간에 논쟁이 되는 부분은 자유롭게 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추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p> <p>그럼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발언하시겠습니까?</p>
학생1	<p>저부터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문제아는 우리 사회나 가정, 학교가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문제아로 불리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그랬다기보다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마음이 삐뚤어져서 문제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아를 개인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불량소년의 꿈’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본 적이 있는데, 주인공은 부모님의 이혼과 학대, 선생님들의 차별 등으로 불량소년이 되더라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은 친구들 중에 많은 부분은 환경적인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p>
학생2	<p>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가령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모두가 불량소년이 되고, 그 원인을 환경 탓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개인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범죄자들은 모두 환경 탓이니 그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야 할까요?</p>
학생3	<p>저도 2토론자님 입장과 동일합니다.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의지 문제 아닌가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많습니다.</p>
학생4	<p>맞아요. 주위에서 집안이 가난하거나 홀어머니 밑에서도 훌륭하게 자라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반면이 집안이 부유하고 환경이 좋아도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문제를 저지르는 친구들도 많고요.</p>
학생1	<p>다른 분들이 모두 개인의 문제로 이야기하시는데, 다시 소설로 돌아가서 살펴볼까요? 소설 속의 창수가 만약 집안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동네에 아이들의 돈을 뺏는 강패들이 없었다면, 선생님께서 창수를 차별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과연 창수가 문제아가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 있을까요? 물론 환경이 안 좋다고 다 문제아가 되거나 환경이 좋다고 모두 문제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아들의 많은 부분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



학생3	1토론자님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저도 생각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창수의 경우 위에서 말했던 것 중에 한 가지만 없었더라도 문제아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령 집이 가난하지 않았거나, 캄패들이 없었거나, 선생님의 차별적 시선이 없었거나. 실제 창수처럼 본인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4	저도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요. 2토론자님이 말한 어른 범죄자들과는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린이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은 아무래도 주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면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1토론자님의 의견에 다들 설득되는 분위기이네요. 저는 여전히 개인의 의지가 문제아의 원인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친구들의 생각을 듣고 보니 환경적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모듬은 논제 ‘문제아는 주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가?’에서 모듬의 의견을 ‘문제아를 만드는 원인은 환경적인 부분이 크다.’로 정리하겠습니다. 근거로는 소설 속의 창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의 성향을 들겠습니다.
학생 1,3,4	좋습니다.

나. 모듬별 토론 내용 기록

● 토론 핵심 내용 기록하기

모듬원	모듬원들이 각자 발표한 내용의 핵심을 포스트잇에 정리하여 사회자용 모듬 토론 정리지에 붙인다. - 〈서식2〉 활용
사회자	모듬 토론 결론 및 소감을 정리한다.





5. 발표 및 정리

가. 모둠별 토론 내용 발표

- 모둠별 토론 결과 발표하기

나. 토론 활동 정리

- 전체적인 토론 내용 정리하기
- 자신 및 모둠원 토론 활동 평가하기

가. 모둠별 토론 내용 발표

- 모둠별 토론 결과 발표하기

교사	그럼 시간이 다 되었으니 모둠별로 토론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어느 모둠이 먼저 발표하겠습니까? (시간상 몇 모둠만 할 수도 있다.)
1모둠 사회자	<p>(사회자용 모둠 토론 정리를 참고하여 발표한다.)</p> <p>네, 저희 1모둠이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제아는 주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가?’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p> <p>저희는 문제아를 만드는 원인은 환경적인 부분이 크다고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소설의 내용 속에서 창수가 만약 집안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동네에 아이들의 돈을 뺏는 강패들이 없었다면, 선생님께서 창수를 차별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창수는 과연 문제아가 되었을까 하는 질문에 모둠원들 대부분이 개인적인 부분보다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문제아의 원인으로 환경적인 면이 더 크다면, 모든 범죄자는 환경 탓이니 죄를 묻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청소년기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른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반론이 나왔고, 모둠원들이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p>

나. 토론 활동 정리

- 전체적인 토론 내용 정리하기
- 자신 및 모둠원 토론 활동 평가하기

교사	여러 모둠의 토론 결과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둠별 논제 중에는 당장 답을 얻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질문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가령 1모둠의 ‘문제아는 주변 환경 때
----	---



	<p>문에 만들어지는가?’라는 주제는 우리 사회나 가정이 문제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개인과 환경을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겠지요. 이처럼 책을 읽고 그냥 나의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나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 생각을 확장시켜 보면 좋겠습니다.</p> <p>이어서 배부한 토론 수업 관찰지에 자신과 모둠원의 토론 활동을 평가해 봅시다.</p>
학생들	자신과 모둠원의 토론 활동을 평가한다. - 〈서식3〉 활용
교사	오늘 토론하고 발표한 0반 학생들 모두 애 많이 썼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책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상 토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III

도움말



1. 토론 환경 구성

가. 모둠 구성 및 자리 배치

- 한 모듬은 4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 토론 전에 모듬원끼리 앞 뒤 줄로 모여 앉는다.
- 짝 토론은 앉은 자리에서 짝끼리 마주보며 하고, 모듬 토론은 홀수 줄의 두 학생이 뒤로 돌아 앉아 4명이 진행한다.

나. 사회자 선발 및 교육

- 일반적으로는 모듬원들의 협의를 통해 모듬 사회자를 뽑는 것이 좋다. 토론을 즐거운 분위기에서 하고 싶다면, 간단한 게임 같은 것을 통해 선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진지하고 밝은 토론 분위기를 조성하는 몫이 사회자의 리더십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 사회자의 리더십을 깨고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 때문에 모듬 토론이 힘들 경우, 교사가 뒤에서 도와 줄 필요가 있다.

다. 토론 분위기 조성 방법

- 짝 토론으로 처음 말을 시작해야 할 때 어색해 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 때 “눈이 큰 사람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이 긴 사람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등으로 시작하면 재미있고 활발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부담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 토론할 때 모든 모듬원들이 높임말을 사용하며, 서로를 ‘00토론자’로 호칭하도록 하여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토론이 진행될 수 있게 한다.
-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의견을 적는데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핵심 단어만 적게 한다.

라. 준비물

- 질문 및 토론 발표 내용을 적을 포스트잇의 크기는 사무용 메모지보다 조금 큰 것이 좋고, 모듬별로 색깔을 달리해도 좋다.
- 포스트잇을 붙일 수 있는 활동지를 준비한다.



2. 토론 사전 자료 준비

- 교과 내용을 보충한 읽기 자료, 신문 자료, 도서(짧은 내용, 길지만 편집된 내용) 자료,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 논쟁적 질문 만들기가 가능한 읽기 자료를 제공한다. 학생들에 의해 전혀 예측되지 않은 좋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나, 교사가 어느 정도 의도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힌트가 제시되어 있는 자료가 좋다.

* 논쟁적 질문

논쟁이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말이나 글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투는 것을 말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가’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놓고 어느 것이 더 옳은가에 대해 따지는 것이다.

논쟁적 질문이란, 논쟁의 요소를 담은 질문으로 토론 주제인 논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갈등이 담긴 내용을 찾아 질문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예〉

- 균등한 분배가 가능합니까?
- 단체로 하는 급식으로 편식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까?
- ‘엄친아’와 같이 줄임말 중에 많이 사용하는 말을 표준어 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옳습니까?
- 홍길동이 탐관오리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의적 행위는 가치 있는 일입니까?

- 학생에게 주제에 맞는 읽기 자료를 준비해 오도록 할 수 있다.
- 교과서를 읽기 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토론이 가능한 부분을 선별하여 분량을 나누어 읽도록 한다.(4쪽일 경우 각각 2쪽씩 학습)

3. 수업 적용

- 독서 수업의 경우 독서중 활동으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독서후 활동으로 토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 교과 수업의 경우 상호 가르치고 배우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끌 수 있고, 배경지식을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할 수 있다. 국어 수업에서 문학 읽기, 언어 창조 등에서 활용할 수 있고, 역사 수업에서 역사적 맥락 읽기, 비판적 사고 기르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과학 수업에서 과학자와 과학 기술, 미래 직업 탐색 관련 수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 2, 4명씩 짝을 이루어 모둠 활동을 한 후, 전체가 참여하는 수업으로 확장되므로, 학생 모두가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 수업 모형으로 적절하다.

IV 활동지 양식



〈서식1〉 짝 토론 개요서

짝 토론 개요서	
학년 반 번 이름	
글 제목	
읽은 분량	
짝에게 설명할 내용 (핵심 내용)	
짝에게 들은 내용	
토론하고 싶은 질문과 이유	
합의된 질문	



〈서식2〉 모둠 토론 정리지(사회자용)

모둠 토론 정리지

학년 반 모둠 사회자 이름 _____

토론 주제				
모둠원				
1차 발언				
2차 발언				
3차 발언				
결론 및 소감				





〈서식3〉 토론 수업 관찰지(개인용)

토론 수업 관찰지

학년 반 번 이름 김○○

영역	평가 내용		잘함	보통	미흡
자기 관찰	학습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짝의 설명을 듣고 정리할 수 있다.				
	논쟁적 질문을 이해하고 만들 수 있다.				
	논제에 맞는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말할 수 있다.				
	사회자가 되어 모둠 토론을 이끌어 갈 수 있다.(해당자만 표시)				
동료 관찰	학습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짝) 박△△			
	논쟁적 질문을 만들고,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박△△			
		신◇◇			
		유□□			
	논제에 맞는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말할 수 있다.	박△△			
		신◇◇			
		유□□			

2014 서울형 토론모형 개발 위원 명단

기관명	직위	성명
압구정중학교	교감	김해숙
반포초등학교	교사	권정희
대림초등학교	교사	임광택
명신초등학교	교사	박순희
동대문중학교	수석교사	정미선
광성중학교	수석교사	김영찬
경희여자중학교	교사	박일승
인현고등학교	수석교사	신주은
서울사대부설고등학교	교사	서미선
우신고등학교	교사	임영환



이 근 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윤 오 영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



이 정 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독서교육담당 장학관
고 소 향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사
유 재 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사



김 정 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주무관
한 선 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주무관



이 재 호 신사중학교 교사

서울형 토론모형 자료

발행일 2014년 10월

발행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독서교육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 2-77)

전 화 3999-181 FAX : 3999-748

인 쇄 (주)삼영디앤피 02-725-6697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2014 서울형 토론모형



www.sen.go.kr